

런던大學의 傳統과 現況

李 炫 馥

(서울大 言語學科 教授)

- ◇ 이 글은 編輯室의 요청에 따라 英國 런던
- ◇ 大學에서 보내 온 資料를 참고로, 同大
- ◇ 學에 修學하여 碩·博士學位를 取得한 서
- ◇ 울大學校 李炫馥教授가 써 주셨습니다. 이
- ◇ 자리를 빌어 좋은 자료를 보내 주신 Ran-
- ◇ dolph Quirk 副總長님께 깊은 謝意를 드
- ◇ 립니다.〈編輯者 註〉 ◇

I. 머리말

“자신의 오장육부를 짚고리 도려내어 분해한 다음, 철저한 처리를 하여 다시 조립하는 듯한 아픔과 기쁨을 동시에 느꼈다.” 이는 筆者가 런던대학에 유학하여 석사와 박사학위 과정을 다 마치고 귀국한 다음, 영국 留學時節을 회상하여 쓴 글의 핵심이다.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으나 지금도 그 시절을 회고해 보면 역시 똑같은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흔히 영국의 배학 교육을 가리켜 大衆教育이 아닌 秀才教育이라고 부르는 근거를 부분적으로나마 실감하게 하여 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영국의 교육방법을 반드시 수재교육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아뭏든 모든 면에 철저하고 정밀함을 강조하는 교육방법임에는 틀림없다. 더구나 60년대의 우리나라 교육과 비교할 때 그러한 特性은

더욱 두드러졌다. 이제 런던대학의 이모저모를 나 자신의 유학체험을 중심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II. 런던大學의 역사

런던대학은 이제 160여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英國 最大의 大學이다. 옥스포드나 케임브리지 대학에 비하면 상대가 안 되는 짧은 역사를 지녔다고 볼 수 있으나, 런던대학은 設立動機부터 특색을 지녔다. 19세기 초엽까지 영국의 대학이라고는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밖에 없었으며, 이들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란 敎人으로서 부유한 집안의 아들들에 국한되고 있을 뿐이었다. 이는 영국뿐만이 아니고 대학의 嚆矢였던 이태리의 볼로냐(Bologna) 대학과 불란서의 파리 쏘본느대학도 마찬가지였다. 즉 중세의 대학이란 설립동기부터가 神學者와 종교계의 指導者를 양성함에 있었던 만큼, 교육내용도 신학을 필두로 하여 수사학, 문법 등 古典教育에 역점을 두었고, 입학과 졸업하는 데에도 神學과 宗敎에 관한 지식이 필수적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일부의 선택된 계층의 젊은이들뿐이었다. 영국에서도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는 바로 이러한 풍조를 가진 閉鎖的인 교육기관이었으므로, 가문과 종교적인 이유

로 인해서 대학에 가고 싶어도 진학하지 못하는 일반 대중은 많은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런던대학은 바로 이러한 문벌과 종교적인 폐쇄성에 대한 반동으로서 대동한 進歩의 新興教育機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런던대학의 초기 설립자들은 人種과 主義 및 政治的 所信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저렴한 학비를 징수하는 교육기관으로 육성할 것을 目標로 삼았다. 당시에 런던은 이른바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의 수도로서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부유한 도시였고 의학과 법률분야 등 고등교육의 전통과 역사도 찬란한 바 있었으나 막상 정규대학은 없었다.

그러다가 1820년대에 들어서서 시인인 Thomas Campbell과 정치인 Lord Brougham 경이 주축이 되어 Bloomsbury에 대지를 구입하고 Gower Street에 건물을 세우기 위한 모금운동을 폈다. 이렇게 하여 설립된 대학이 바로 런던대학의 선발태적인 University College이다. University College란 명칭이 처음 듣는 한국인에게는 대단히 생소하고 이상하게 들리지만 영국과 영연방에는 이러한 명칭을 가진 單科大學이 많다. 어떤 이는 University College라니 “종합대학 단과대학”이란 말이냐라며 불합리하다는 표정을 짓는 일이 있지만, 오랜 역사와 전통을 타고온 이러한 명칭을 낱말 그대로 직역하여 이해하려는 태도 자체가 무리라고 볼 수 있다. University College는 대체로 종합대학 안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단과대학으로서 전체대학의 骨體 구성을 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실제로 런던대학의 University College는 오늘날 문학부뿐만이 아니라 법학부, 의학부, 이학부, 공학부 및 경제학부까지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단과대학으로서 가위 소규모의 종합대학 또는 종합대학의 축소판으로 볼 수 있다. 나 자신도 바로 이 University College의 음성학과에서 碩士課程을 이수하면서 대학의 복잡하고 다양한 구성에 기이한 감을 갖게 되었다. 그러므로 University College는 우리나라로 치면 과거의 서울대학교 文理科大學에 비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그 규모에는 큰 차이가 있어서, University College에는 앞에서 말한 6개 학부 이외에 환경학부를 또

함하여 모두 7개 학부에 62개 학과가 있으며, 이 중 4개는 學校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단과대학의 도서관에는 800,000권의 도서와 14만 점의 팜플렛 및 많은 특별 문고가 설치되어 있으며 십수 개의 博物館을 갖추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기숙사 시설만 하더라도 6개에 이른다.

이제 다시 런던대학의 草創期로 돌아가 보기로 하자. University College의 창설 주역들은 이를 곧바로 런던대학으로 발전시키려 하였으나 학위를 수여하는 權限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여 일단 좌절을 맛보았으며, 게다가 1831년에는 켄터버리 대주교와 웰링튼 공작의 주도로 런던에 또 하나의 King's College란 대학이 신설되었다. 이 두 대학은 종교와 政治理念을 달리하는 경쟁 대학으로서 독자적으로 운영되다가, 1836년에 이르러 왕실 칙령에 의해 정식으로 런던대학이 신설 발족되면서 흡수되어 런던대학의 모체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때에 런던대학은 단지 試驗을 실시하고 學位를 수여하는 기능을 가질 뿐, 학생을 교육하는 일은 각 단과대학의 소관으로 되어 있었다. 이같이 시험관리와 학위 수여만의 기능은 1900년까지 이어지다가 그 뒤에야 오늘날과 같은 단과대학 중심의 聯合大學으로 재편성되었다. 그리하여 연합체의 일원으로 되어 있는 대학이나 기관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을 內部 學位課程 學生(internal students)이라고 하고, 런던대학에 학위과정의 등록은 했으나 다른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을 外部 學位課程 學生(external students)이라고 한다.

이들 외부 학위과정 학생은 과정을 끝낸 후 시험을 통과하면 학위를 얻을 수 있다. 런던대학의 외부 학위과정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機關은 영국뿐만이 아니고 영연방 전체에 흩어져 있다. 예를 들면, 한때에는 노팅햄대학과 가나 대학도 외부 학위과정의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런던대학은 설치령이 개정된 1900년에 와서야 敎育과 研究도 겸하는 대학, 즉 오늘날과 같은 대학의 기능을 갖게 된 것이다.



Ⅲ. 機構와 規模

런던대학은 영국에서 가장 큰 대학이고 그 규모는 다른 대학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 있으며, 그 구성 또한 대단히 복잡한 樣相을 보이고 있다. 우선 런던대학에 속하는 단과대학이 50여개에 이르고 있다는 데에서 우리는 그 방대한 規模를 짐작할 수 있다. 이들 하나하나를 자기 특성과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이들을 분류하여 보면 Institute 라는 명칭을 지닌 單科大學이 13개, School 또는 College 라는 이름을 가진 대학이 30여개가 되는데, 이 중에서 반수 이상이 의학계의 대학이고 나머지가 그 밖의 여러 분야를 담당하는 대학이다. 그리고 신학과 종교관계를 전문적으로 교수하고 연구하는 대학이 세 군데이다. 이들 50개의 대학을 모두 소개할 수는 없으나, Institute 중에는 고고학이나 법학, 고전, 컴퓨터 따위만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교육기관이 별도의 단과대학으로 존재하고 있고, School 이나 College 란 명칭을 가진 단과대학으로는 University College 나 King's College 를

비롯하여, 정치, 경제 따위의 社會科學에 역점을 두는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와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의 언어, 문화, 역사 따위를 중심으로 교수, 연구하는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등이 유명하다. 특히 런던대학에 16개 정도의 의과대학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믿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이 중에는 大學院水準의 교육과 연구만을 전문으로 하는 의과대학원도 별도로 존재한다.

런던대학의 단과대학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이미 앞에서 소개한 University College 로서, 학부와 대학원을 합하여 학생수가 7천명을 상회하며, 그 다음으로는 이공계대학인 Imperial College of Science and Technology 이다. 이같이 큰 대학이 있는가 하면, 전체 학생수가 수백명에 불과한 소규모의 단과대학도 있다. 또 단과대학들은 한데 모여 있지 않고 흩어져 있어서, 서쪽으로는 Windsor, 동으로는 Stepney, 북으로는 Potters Bar, 남으로는 Kent 에까지 미치고 있다. 또한 대학들은 專攻分野도 자기 다른데, 그 중 일부 대학은 학교 명칭에 전문분야가 분명

히 나타나는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흔히 LSE로 널리 알려진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나 수의과 대학인 Royal Veterinary College, 이공계의 Imperial College of Science and Technology, 아시아 아프리카 연구 대학인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및 기타 의학적 대학들의 명칭에는 분야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경우이다. 왕립의과대학원(Royal Postgraduate Medical School)은 專門領域은 물론, 水準까지도 잘 나타내고 있는 대학의 명칭이다. 한편 Birkbeck College는 야간에만 수업을 하는 대학이어서, 주로 주간에 職業을 가진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이다.

이미 앞에서 의학적 대학의 규모가 방대함을 설명한 바 있으나, 런던대학이 영국의 의학계에 공헌한 바가 크다는 사실은 영국 전체의 의사 중 3분의 1이 런던대학 出身이라는 점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런던대학은 공학, 이학, 인문과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규모와 성격이 다양한 런던대학은 중앙의 Court, Senate, Councils 및 Boards 등의 行政 및 運營機構를 중심으로 균형있게 운영되고 있다. 이들 기구들은 말하자면 교수와 학생, 학장과 졸업생의 衆智를 한데 모으는 민주 정부의 구실을 하며,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교육과 연구를 통한 人類福祉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IV. 傳統的인, 特異한 자랑거리

이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런던대학은 영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학이라는 名聲을 지니고 있으나 그 밖에도 여러 자랑스러운 기록을 가지고 다른 대학을 이끌어가고 있다. 우선 런던대학은 入學段階에서부터 종교적인 배경이나 자격요건을 완전히 철폐하였다는 점이다. 종교적인 영향이 절대적이었던 당시에 대학의 울 안에서 宗教的色彩를 송두리째 뺏아 버렸다는 것은 획기적인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또한 런던대학은 현대적인 學問分野의 연구와 교육도 도입하고 실천한 최초의 대학이다. 예를 들면, 오늘날에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옛날에는 독

립된 학문 분야로 설정되지 않았던 지리학이나 영어 같은 분야를 독립된 學問과 學科로 신설, 육성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물리학, 화학, 생리학 같은 분야의 實驗室의 설치와 현대적인 理工學 敎育을 영국에서 처음 실시한 것도 바로 런던대학이다.

런던대학은 여성에게 學位를 수여한 최초의 영국 대학이라는 기록도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本山이라는 영국이었으나 여성에게 학위를 수여한다는 문제는 그리 쉽게 관철되지 않았다. 학위 과정을 여성에게도 개방하자는 案은 이미 1862년에 나왔으나, 표결에서 총장이 던진 마지막 반대표로 인해 성사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5년 후인 1867년에는 여학생에게 卒業資格證을 수여하도록 완화가 되었고, 이후 계속된 男女平等을 위한 투쟁이 결실을 맺어서, 1878년에 이르러서는 대학이 수여하는 學位나 賞은 남녀의 차별없이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칙의 개정을 보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1880년에는 드디어 네 명의 女子卒業生이 문학사의 학위를 취득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런던대학은 1912년에 여성에게 正敎授職을 처음으로 수여한 대학이 되었으며, 1948년에는 영연방에서 최초로 여성을 副總長(Vice-Chancellor)으로 선출한 기록을 세운 바도 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1955년에는 엘리자베드 여왕의 어머니를 최초의 王室出身 總長으로 추대하는 획기적인 기록을 남겨 놓았다.

신생국가인 미국과는 달리 영국은 오랜 傳統의 나라여서 그런지 단과대학이나 보직의 명칭도 統一性이 없이 다양하고 특이하여서 처음에는 누구에게나 생소하고 기이하다. 알고 보면 영국사람들 자신도 명칭이 왜 그렇게 다양한지를 선뜻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흔하지 않은 것 같다. 가령 런던대학의 총장은 Chancellor 라고 하고 부총장은 Vice-Chancellor 라고 하는데, 영어명칭 자체도 특이하거나, 실제로 총장은 왕족 등의 명망있는 사람이 象徴的으로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이고 實權과 實務는 부총장이 갖게 된다. 현재 런던대학의 총장은 앤 공주가 엘리자베드 여왕의 어머니, 즉 할머니의 뒤를 이어 하고 있고, 부총장은 영어학자

인 Randolph Quirk 교수가 얼마 전부터 맡고 있는데, 킁 부총장은 82년 여름에 서울에 초청되어 講演과 發表를 한 일이 있다.

교수의 명칭도 미국과는 다른 데가 있다. 정교수를 Professor 라고 하는 것은 같으나, 그 때에는 부교수란 직함이 없고 대신에 Reader 란 급이 있으며, 그 다음에도 조교수란 급 대신에 곧바로 Lecturer 란 직급이 있다. 다만 Lecturer 에는 Senior 와 Assistant 의 구별이 있다. 이는 곧 정교수 같은 上位 職級의 수가 많지 않으며 승진도 어렵다는 뜻이 된다. 실제로 새로이 정교수 자리가 신설되거나, 정년으로 자리가 나기 전에는 昇進이 대단히 어려워서, Reader 로 은퇴하는 사람이 많으며 심지어는 Lecturer 로서 몇십 년 근무하던 대학을 떠나야 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또한 學長의 명칭도 가지각색이어서 도무지 짐작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가령 University College 의 학장은 Provost 라 하고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는 Director 이며, Imperial College of Science and Technology 는 Rector, Goldsmiths' College 같은 곳은 Warden, King's College 같은 대학은 Principal, 그리고 대부분의 의학적 대학의 학장은 Dean 이라고 한다. 필자는 얼마 전 서울대학을 방문한 Imperial College 의 Rector 인 Lord Flowers 와 오찬을 함께 하는 도중에 이같은 학장의 명칭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간에 무슨 뚜렷한 의미상의 差異를 느끼느냐고 물었으나, 대답은 “전통적으로 내려온 이름일 뿐 특별한 차이를 못 느낀다”는 것이었다. 傳統과 歷史가 길고 이를 중시하는 나라의 명칭이니 역시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음을 다시 한번 느꼈다.

V. 個人指導制度(Tutorial System)

영국 대학의 이른바 엘리트 교육의 중추는 바로 개인지도 제도 즉 Tutorial System 이 아닌가 한다. 개인지도 제도는 대학의 정규 강의 이외에 학생이 指導教授를 매주 또는 격주로 정기적으로 만나서 일대 일로 토론을 하고 지도를 받는 교육방법이다. 지도교수는 매주 論文을 작성

해 오도록 제목을 주고, 학생은 지시받은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도서관의 책 속에서 묻혀서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논문을 전해받은 교수는 이를 읽고 필요한 수정을 한 다음, 다음 모임에서 이에 대한 討論과 評을 해 준 후 또 다시 새로운 제목을 지시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일대 일의 개인지도를 통하여 교수는 학생의 虛實을 완전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지도를 적절히 할 수 있다.

개인지도제는 교수에게는 많은 부담이 되나 학생에게는 判斷力과 分析力을 길러 주며, 어떤 문제든 홀로 해결하고 이를 논리정연하게 기술할 수 있는 能力을 배양시켜 준다는 점에서 실효있는 제도라고 생각된다. 이같은 직접 지도는 논리적인 사고력과 아울러 문장력도 향상시켜 주기 때문에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도움이 된다. 필자 역시 60년대의 런던대학 유학 시절에 체험했던 튜토리얼을 돌아보면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으나, 또 한편으로는 더할 수 없는 값진 시간이었 다시 얻을 수 없는 思考와 論理와 言語의 훈련장이었다는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서양인과 동양인간에 논리의 차이가 있으며 한국어와 영어 사이에 구조적인 差異가 심각하다는 것도 튜토리얼과 논문지도를 통해서 새삼 실감할 수 있었다.

VI. 學位와 試驗制度

영국의 엘리트 교육을 지탱시켜 온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바로 엄격한 시험제도라고 볼 수 있으리라. 영국에는 전통적으로 시험의 관문이 높고 험했다. 더구나 옛날에는 대학을 졸업하려면 전공에는 아무 관제도 없는 宗教關係의 시험까지 치뤄야 했으니, 그 험난한 길이 짐작되기도 남음이 있다.

학부의 學位는 대체로 3년 또는 경우에 따라 4년이 걸리는데, 졸업할 때에는 보통의 등급인 B.A. Ordinary 와 우등생급인 B.A. Honours 로 구별이 되며, 후자는 다시 1급과 2급으로 나뉜다. 학년말, 학기말 시험 및 졸업시험 이외에도 학생들은 수시로 치는 시험과 숙제에 매달려

야 하며 튜토리얼에도 참가해야 한다. 成績이 불량하면 경고를 받고 심하면 퇴학을 당하는데, 어떤 때는 한 반 학생의 3분의 1 또는 2분의 1 까지 학교에서 물러나는 경우를 본 일이 있다. 試驗結果는 그때마다 대학의 게시판에 성적순으로 발표되고 하는데, 특히 졸업시험 결과는 Honours 1급과 2급 및 Ordinary로 발표되기 때문에 단인이 모두 알기 마련이다. 이같은 공개적인 成績發表는 본인은 물론이고 동료와 후배에게 미치는 영향과 자극도 클 수밖에 없다. Honours와 Ordinary의 차이는 심각하다. 우선 대학원에 진학할 사람은 적어도 B.A. Honours를 받아야 하고 사회의 職場으로 진출하는 데도 우등생은 보통보다 급료나 대우가 판이하게 다르다.

영국 대학의 학위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연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학위 과정에 잘 받아 주지 않을 않기 때문이다. 우선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G.C.E. (General Certificate of Examination)란 국가시험에서 소정의 과목을 합격해야 하는데 이것이 여간 어렵지 않으며, 특히 외국인들에게는 바늘귀 같은 과문이 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대학원 과정도 입학은 용이하지 않다. 공부를 계속할 만한 基本實力을 갖추었는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야 학위 과정에 입학시키기 때문에 우선 들어가기부터가 어려운 것이다. 韓國人으로서 영국에서 학위를 한 사람이 극히 적고, 영국에 유학을 갔다가도 정식 과정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미국이나 그 밖의 나라로 방향을 전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런던대학의 大學院課程에서 밟을 수 있는 과정에는 Diploma, M.A., M. Phil. (Master of Philosophy), Ph.D. 등이 있는데, Diploma는 영국이나 영연방제국의 現職教師나 教授가 실제 교육에 필요한 내용을 1년 정도 공부한 후 시험을 거쳐 자격을 인정받는 제도이고, M. Phil.은 상당히 독창적인 研究論文과 아울러 시험을 통

과해야 얻는 학위이므로 보통 필기시험과 소논문을 요구하는 M.A. 과정과 구별된다. 필자가 62년에 런던대학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할 때는 M.A. 뿐이었으나 60년도 후반부터 M. Phil. 제도가 신설되어 석사과정이 이원화된 셈이고, 결과적으로 지금의 M. Phil.은 과거의 M.A.와 같고 그 아래에 좀 격이 낮은 M.A.가 신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석사과정의 이중 구조는 근래에 증가추세에 있는 大學院 進學生을 적절하게 수용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학생의 재질을 선별하여 等級에 따른 필요한 교육을 낭비없이 시행하겠다는 영국적인 思考方式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런던대학의 대학생들은 대부분 獎學金을 받고 있으며 일부 학비를 내는 학생도 부모의 收入程度에 따라 차등이 있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외국학생들에게는 영국인 학생에 비해 엄청나게 비싼 학비를 받고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끝으로 영국에 유학을 희망하는 젊은이에게 도움말을 한마디 남기고자 한다. 영국 유학을 떠나기에 앞서 여러가지 준비가 필요하겠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은 영어의 驅使力이다. 그리고 영어 중에서도 특히 영국식의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훈련을 쌓아야 한다. 영국의 標準 英語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국에서 흔히 듣게 되는 미국식 영어와 발음이 많이 다르므로 미국 영어만을 배운 사람은 영국영어에 처음 접할 때 잘 이해가 안 되어 당혹스러울 때가 있다. 더구나, 傳統과 格式을 존중하는 영국에 유학을 할 사람이라면 영국의 경통 표준영어를 익혀 쓰는 것이 예의일 것이며, 그래야만 유학생활을 유익하고 보람있게 할 수 있고 올바른 待遇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국 인간은 언어를 통해 사람다운 삶을 누리는 것이며 더우기 知的 活動인 학문은 어느 분야이건 언어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